

일제강점기 여성교육과 가정개량 담론에 관한 일고찰

이경규*
lk5120@de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가정개량에 관한 담론의 등장과 전개 |
| 2. 여성교육에 관한 담론 형성 | 4. 나오며 |

주제어: 신여성(New woman), 여성해방(Women's liberation), 여성교육(Women's education), 가정개량론(Home improvement theory), 의복개량(Clothing improvement), 주거개량(Residential improvement)

1. 들어가며

1910년의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서구 유럽에 대한 무조건적 선망과 동경 속에서 주로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집중되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식민지 근대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일상문화의 영역으로 점차 확대 정착되어 가게 된다. 당시 이러한 식민지 근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주체들의 중심에는 여학생, 신여성, 모던 걸, 모던 보이 등으로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들이 있었다. 여기에는 조선총독부가 3·1운동 이후 상황을 수습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그동안의 경제사회적 기만책으로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것과도 관련된다.¹⁾ 조선총독부가 기만적인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여성 교육을 표방하면서 근대교육을 받게 되는 젊은 여성들도 늘게 된다.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통해 근대적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당시 사회에 크게 유행하게 된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었던 초기의 여성 교육 운동은 민중의 호응을 그다지 얻지 못한 채 일부 개화 지식인층 부녀들에 제한되어 전개되었지만, 점차 여성 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광범위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지식인층과 신여성들의 근대적 문화 아이콘은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일본어학과 교수

1) 사이토 마코토 총독(齋藤実, 제3대, 제5대 조선총독부 총독)은 점진적으로 식민지 조선을 일본의 일부로 생각하는 소위 내지연장론에 입각한 조선총독정치의 지배관을 갖고 있었다. 사이토 총독은 강압적 식민 통치를 완화하고 조선인의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문화정치’의 틀을 견지하면서 조선인의 저항과 참정권 요구를 회유해 식민지배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소위 가정개량론의 담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선총독부가 문화정치를 표방함에 따라서 「朝鮮日報」와 「東亞日報」 등의 신문 발행과 여러 잡지 발행의 붐이 일게 되는데, 언론 검열 등 많은 제약이 수반되는 가운데서도 이들 신문과 잡지의 발행은 당시 지식인과 신여성들이 다양한 담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婦人』(1922.06 - 1923.08)과 『新女性』(1923.09 - 1934.06)은 1920-30년대의 대표적인 여성지였으며, 「朝鮮日報」(1920.03 - 1939.12)와 「東亞日報」(1920.04 - 1939.08)는 근대 신문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 발간되어 왔고, 높은 독자수를 확보하고 있었던 신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 매체들의 여성 관련 기사는 당시의 여성 담론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일제강점기 여성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는 여성 관련 담론의 형성과정과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이미지 재현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신문이나 여성잡지의 담론을 통해서 신여성의 다양한 주제화를 찾고자 한 연구와 계몽을 통한 여성들의 직업선택과 사회진출의 과정을 고찰한 연구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²⁾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신문과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교육과 가정개량에 관한 담론을 정리하고 이러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여성교육에 관한 담론 형성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제의 문화통치가 조선에게는 기만적인 식민지 정책이었지만, 여러 신문과 잡지의 창간 붐으로 인해 다양한 담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이들 신문과 잡지는 여성해방과 여성교육에 관련된 담론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는

2) 강이수(2004) 「근대여성의 일과 직업관 - 일제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65집, 한국사회학회

이소연(2004) 「일제강점기 여성잡지 연구 -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29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주창윤(2008) 「1920-1930년대 ‘모던 세대’의 형성과정」 『韓國言論學報』 52권 5호, 한국언론학회

김윤선(2009) 「근대 여성매체 『신여성』에 나타난 여성의 소비문화」 『동양학』 제45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김용화(2012) 「근대 상품광고로 본 신소비문화와 신여성」 『동국사학』 제52집,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이행화·이경규(2016) 「일제강점기의 조선 신여성 인식에 관한 일고찰 - 여성잡지 『新女性』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51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7) 「일제강점기의 직업여성에 관한 담론」 『일본근대학연구』 제57집, 한국일본근대학회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제에 의해 무단 통치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상투를 금지하고 양복을 착용하도록 한 것은 문명개화가 아니라 일제의 문화 침탈 행위에 굴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종교나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이와 같은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으며 반대하는 이들도 적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성들과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³⁾ 이들 여성해방이나 여성교육에 관한 담론은 서양의 근대 이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소위 남성 지식인과 제1세대 신여성을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 전통과 인습을 버리고 남녀평등과 여성해방, 여권신장 등의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주장들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大概 女子의 解放은 무엇을 指함이뇨 在來의 一夫一婦制度를 打破하고 兩性間關係의 混亂을 意味함이며 在來의 家庭生活를 打破하고 社會生活를 意味함이뇨 或은 內外하는 風習을 打破하고 自由交際를 意味함이며 唐靴 代身에 洋靴, 장옷 代身에 洋傘, 쪽지머리 代身에 「히사시가미」를 意味함 이뇨?⁴⁾

우리들은 일찍히 ‘新女子’라 稱하는 人이 各地에 起하는 것을 見하얏다 그네들의 自己改造의 意識은 多數는 自發的 獨創的이 아니오 受動的 雷同的이엇슴으로 그 最初의 方向은 반듯이 不美한 것은 아니엇으나 中途에 挫折되야 極히 少數의 有力者가 엇던 程度의 價値잇는 展開를 示한 以外에는 妥協이 아니면 墜落의 徑路를 取하야 今日에는 그 存在까지도 社會의 水平線上에 認定키 어렵게 되엇다⁵⁾

1920년대 여성들의 가장 큰 변화는 신여성의 출현이다.⁶⁾ 구여성이 수건, 행주치마, 장옷이 상징이라면 신여성은 이것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양머리를 하고 검정치마, 구두, 그리고 책꾸러미를 챙겨서 거리와 학교라는 공적 공간에 등장하여 강연회나 음악회 등에서 다양한 대상들과 교류하는 근대적 주체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여성해방을 다룬 신문과 잡지 기사들은

3) 이경규·이행화(2017)「일제강점기 조선의 신여성에 관한 담론 형성」『외국학연구』제39집,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pp.398-399

4) 「女子解放의 問題」『東亞日報』1920년 6월 2일자 1면

5) 「自己로 사는 婦人(1)-(4)」『東亞日報』1920년 6월 21~24일자 각 1면. 이 기사는 1920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에 게재된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1878~1942)의 글을 번역해 게재한 내용으로 일제강점기의 신여성 관련 담론은 일본의 여성운동 담론과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사노 아키코는 유럽의 여권 신장 운동 체험을 통해 여성의 정조와 자아 해방을 인권문제로 확산시킨 작가이다.

6) ‘신여자’라는 말은 일본에 유학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191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신여성’은 부인잡지 『新女性』이 출간되는 1923년 9월부터 대중적인 용어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현실의 부당함을 폭로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당시 남성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여성해방은 주로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여성 교육의 실천을 당면 과제로 생각하는 담론이 형성되어 갔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사회 구성원 주체로서의 참정권과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현모양처 교육을 대신하여 남녀평등과 인격주의에 입각한 창조적인 여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문제에 있어서는 중매결혼이 연애결혼으로 바뀌어야 하며, 직업에 있어서도 남녀의 능률에 비례하는 임금평등이 이루어지는 등 여성들의 자기주체적 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람은 누구나 人權 生存權을 타고 낳다 이것을 말하여 天賦人權이라 한다 이 人權에는 決코 絲毫의 差別도 업고 平等이다 絶對로 平等이다 平等임으로 自由이다 그럼으로 사람에게 神聖하고 尊嚴한 것은 人權 生存權이 잇슬 뿐이다 이 尊嚴한 것을 일는 者는 곳 生命을 일는 者이오 이것을 빼앗는 者는 곳 生命을 빼앗는 者이다 그럼으로 이러케 말하고 쉽다 「사람아 自由러워라 그러치 안커든 死하여라」고 만일 이것을 平等치 못하게 하고 自由럽지 못하게한 무엇이 있다 하면 그것은 罪惡이다 그것이 社會일 것 갓흐면 社會의 罪오 制度나 習慣이 그러하다 하면 制度나 習慣의 罪다 만일 制度나 習慣의 罪惡이라 하면 그 制度와 習慣을 우리에게 遺傳한 聖賢이나 君子나 英雄이나 天才나 모다 이 罪惡에서 逃亡하지 못할 것이다⁷⁾

如此히 過去의 모든 것이 暗黑이였슴으로 誤解이였고 曲解이였슴니다 自然의 勝利로 今日은 모든 것이 曉明期를 當하얏슴니다 그럼으로 自體를 自體로 보라고 하여 過去의 모든 因襲道德 習慣에 對하여 惑은 半分 惑은 全部를 否認함이외다 여러분 暗黑한 處에서 光明界로 不平等에서 平等으로 不自由에서 自由로 不自然에서 自然으로 即 통트러 말하면 산 世界眞實한 世界에서 眞實한 道德으로 自己의 生을 實現시키게 하는 것이 곳 開放의 眞意라 하겡슴니다⁸⁾

男子는 外的方面에 女子는 內的方面에 소래를 가치하여 幫助하며 步調를 가치하여 竝進하면 우리 社會의 光明과 芳香은 윈누리(世界)를 새롭게 하지 안으랴나 先覺者인 婦女들이여 諸氏의 素志를 實現하고자 하거든 한갓 末에 馳하지 말고 먼저 生活方式의 改造에 努力을 할지어다 絶叫할지어다!! 女子의 解放에 同情을 가진 諸氏여 解放의 必要만 論하지 말고 實現의 方法을 攻할지며 實現의 迅速을 欲하거든 먼저 生活方式의 改造에 注意할지어다⁹⁾

7) 鳳栖山人(1920)「人權과 男女平等(2)」『東亞日報』7월 10일자 4면

8) 金麗生(1920)「女子解放의 意義(1)」『東亞日報』8월 16일자 1면

9) 朱基璿(1921)「女子解放의 根本方針(2)」『東亞日報』7월 21일자 4면

1920년대부터 도시의 지식인들은 천부인권론을 앞세워 일제 식민지 현실 속에서 전통과 인습을 타파하고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봉건적인 가족제도와 결혼제도에 대한 비판과 도전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개조와 개혁을 이룸으로써, 단지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의 필요성만 논하지 말고 여권신장과 남녀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大凡 敎育은 두 가지가 잇을 줄 안다 敎育學의 分類에는 잇든지 업든지 나는 敎育을 사람의 敎育 그릇의 敎育 兩者로 난호고 십다 이 두 가지 敎育 中에 어느 것이 人生에게 眞이 될는지 또는 社會에 有益할는지 그것은 나의 알 배 안이오 또한 알 수 업는 일이다 女子敎育으로 말하면 所謂 賢母良妻主義의 敎育이 잇다 女性은 꼭 賢良한 母妻가 되도록 하자는 敎育이다 이것은 日本 이나 朝鮮에 實行되고 主唱도 된 敎育이다 나는 이 主義의 敎育을 그릇의 敎育이라 한다 母라는 妻라는 그릇으로 女性을 平價한 先入見이 잇는 까답이다¹⁰⁾

그럼으로 사람 全般에 亘한 敎育은 아닐 줄 나는 밋는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疑問이 생긴다 女子는 나서부터 男性의 妻, 人類의 母 될 義務를 有한가? 이것이다 이거 女子敎育의 根本問題가 存在하는 것이다 그 問題解決 如何에 依하여 그릇의 敎育 사람의 敎育 어느 便이 眞인지를 알 것이다 그러나 이 問題는 即 人生의 根本哲學에 關한 것임으로 나는 여기 迂闊한 理論을 避하고 簡單한 答案을 쓰고저 한다 <중략> 元來 男性의 敎育에 限하여는 賢父良夫란 말이 잘 들니지 안는다 이것은 男性이 女性을 本位 삼지 안코 꾀까지 사람의 敎育을 벗어온 證跡이다(그 方針이 잘못되어서 혹 그릇의 敎育을 벗어온 時代도 잇섯지만) 그럼으로 男性은 女性보다 優越한 地位를 占有한 것이다 女性은 사람인 것을 잇고 男性 本位の 賢母良妻란 그릇이 되고 만 것이다 우리 社會에서 女性의 敎育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말을 기다릴 것 업시 누구나 다 女性의 地位 向上을 自覺식힐 만한 敎育이라 할 것이다 즉 男女平等論이 女權擴張論이다 이것이 사람다운 女性을 만드는 敎育이다¹¹⁾

大抵 男性에게 屈服하여 종노릇을 할진댄 母는 되야 무엇하며 妻는 되야 무엇하랴? 안이 그 따위 女性으로는 賢母良妻는 커녕 아모것도 못 될 것이다 賢字 良字는 다만 順從溫良을 意味한 것이 안이다 개는 主人에게 잘 服從하야도 賢良한 개라는 소리는 못 들는다 우리 朝鮮女子도 이제는 개사구실을 그만 하여야 하겠다 여기 무슨 엘렌 케이 여사¹²⁾의 論을 訕笑하는 것도 오히려 어리석

10) 梁柱東(1922)「女子敎育을 改良하라(1)」『東亞日報』11월 13일자 1면
 11) 梁柱東(1922)「女子敎育을 改良하라(2)」『東亞日報』11월 14일자 1면
 12) Ellen Key(1916)「War, peace and the future」G.P.Putnam 엘런 케이(1849~1926)는 성(性)·사랑·결혼에 관한 진보적인 사상과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진보적인 여성 교육에 널리 영향을 끼쳤으며, ‘스웨덴의 팔라스 여신’으로 불린다.

은 일이다 적어도 現代의 自覺 잇는 女性은 누구나 男女의 絶對平等을 主張할 것이다 男女平等 女權平等 即 女性復興이다 女性復興의 根本策은 何에 在하고? 曰 自由이다 元來 平等이라면 곳 自由를 想像한다 自由行動이 업는 곳에 平等理想은 발견치 못한다 女性의 自由는 即 女性의 解放을 意味한 것이다¹³⁾

그리고 도시의 지식인들은 여성들이 재래의 차별적인 양성 관계와 폐쇄적인 인습을 타파하고 과감하게 공적인 공간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구여성이 모성과 가족 등에 대한 관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신여성의 등장은 여성 자체로 옮겨지는 계기를 만들었다.¹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시부모를 잘 봉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현모양처에서 자유평등과 자유연애를 주창하는 여성상, 즉 여성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삶으로써의 여성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담론으로 이어졌다. 현모양처를 강조하는 기존의 여성 교육은 남성 중심의 그릇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굴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현모양처 교육은 남성 우월 의식에 기반한 남성 본위의 여성 교육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남녀평등론과 여권신장론을 기반으로 여성 본위의 교육으로 개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의 자각 있는 여성은 자유와 평등사상을 토대로 남녀평등과 여권신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성해방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해방 담론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전통규범의 인습과 습관을 타파하는 가정개량에 대한 담론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가정개량에 관한 담론의 등장과 전개

구시대의 인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성 본위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여성 교육을 통해서 여성 본위의 가정개량이 필요하다는 담론을 형성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학문 운동과 여성운동을 주도하는 김원주(김일엽)¹⁵⁾와 나혜석¹⁶⁾을

13) 梁柱東(1922)「女子教育을 改良하라(3)」『東亞日報』11월 15일자 1면

14) 김경일(2004)『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p.43

15) 김일엽(金一葉, 1896~1971). 9세 때 신학문의 길로 들어서 진남포 삼승여학교, 이화학당에서 공부했고 일본 닛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문운동과 여성운동을 했다. 결혼에 실패한 뒤 분방한 사생활과 자유연애에 환멸을 느끼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만공선사가 있던 수덕사에서 불도를 닦았다. 25세에 <신여자>를 창간했으며 나혜석·김명순 등과 자유연애와 여성해방을 부르짖었다. 남편과 이혼 뒤에 1920년 10월 YMCA에서 여성교육과 사회문제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폐허> 2호에 <먼저 현상을 타파하라> 등의 글을 발표했다.

비슷한 제1세대 신여성들은 공론의 장을 통해서 가정개량에 대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살림의 업지 못할 세 가지 중요한 것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복이라 합니다 웨그러나 하면 첫째는 위생덕이니 겨울에 치위를 방어하고 여름에 더위를 피하는 위생에 업지 못할 것이오 둘째는 레의덕이니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귀하다 하는 덕이 붓그러움을 알고 레의를 차리는데 잇다 합니다 이 레의를 위하여 업지 못할 것이오 셋째는 미덕(美的)이니 사람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는 비판과 관찰이 잇는 고로 진화가 되고 향상을 한다 합니다 사람의 미(美)를 더하고 몸을 꾸미는 곳 미를 위하여 업지 못할 것이 의복입니다 이 의복이라는 것은 이러케 사람에게 가장 필절한 세 가지 요구를 한몸에 안고 잇습니다¹⁷⁾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복가슴과 빗갈입니다 여름에는 더우니까 자연 희고 얇은 옷을 아니 입을 수 업겠지오만은 겨울에는 면주옷이나 옥양목옷을 피하고 무슨 무색옷(검은 빛)을 취하며 또한 모직류 갖흔 것으로 옷을 지어입어서 좀 오래 입더래도 그대로 깨끗하여 보이게 하는 편이 조홀가합니다(다만 살에 닳는 속옷만 자조 같이입어 깨끗하게 하고) 우리 조선녀자들은 자래로 남들과 가치 윤패하게 한번 놀아보지도 못하고 남의 하는 사업을 경영하여 불 생의도 업시 밤낮 방구석에서 빨내다듬이 바느질로 더부러 세월을 보내 었습니다¹⁸⁾

위의 김원주의 글은 전통적인 백색 의복에 대해 위생, 예의, 미(美)를 고려하면서 계절 감각과 세탁이 편리하도록 옷감과 빗갈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복 개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나혜석은 위생, 예의, 미를 겸비한 개량복에 관한 김원주의 견해에 대해서 일본 여성의 의복 같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가볍고 편리한 조선의 의복으로도 얼마든지 위생과 예의, 미를 가미한 의복 개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일본 의복이나 서양 의복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6) 나혜석(1896-1948)은 신문학을 존중하는 개화된 가정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도쿄에 유학중이던 오빠 경석의 권유로 1913년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유화를 전공했다. 유학시절에는 유학생 동인지였던 <학지광>에 여권신장을 옹호하는 <이상적 부인> 등의 글을 발표했다. 3·1운동에 참가 후 체포되어 투옥되기도 했다. 1920년 변호사 김우영과 결혼했고, 남편의 도움으로 1921년 서울 경성일보사에서 첫 전람회를 열었다. 1923년 일본 외무성 관리가 된 남편을 따라 만주에 거주했다. 1927년 모스크바를 거쳐 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을 여행하면서 미술관과 박물관을 견학하고 파리에서는 야수와 계절의 그림을 그렸다. 유럽 여행 중에 사권 최린과의 만남이 문제가 되어 귀국한 뒤인 1931년 이혼했다. 그 뒤 사회의 인습적인 도덕관에 저항하는 <이혼고백서> 등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는 글을 발표했으나 사회의 냉대로 점점 소외되었다.

17) 金元周(1921)「婦人衣服改良에 對하야 한가지 의견을 드리나이다(1)」『東亞日報』9월 10일자 3면

18) 金元周(1921)「朝鮮風을 忘却함은 不可 부인의복개량에 대한 의견(4)」『東亞日報』9월 14일자 3면

兄의 말과 가치 衛生과 禮儀와 美를 兼한 가장 便하고 가장 完全한 改良服을 우리 一般女子는 要求합니다 그러나 往往 그 改良의 本意를 失하여 혹 實用으로만 生覺하는 수도 있고 또 便한 맛만 取하는 수가 업지 아니하여 있습니다 爲先 兄뵈어도 兄의 口으로 이 三條件을 兼하여 한다 하면서도 結局 其本意를 실한 듯 심소이다 兄의 改良服을 한번 보았스면 젯켓소 하나 寫眞으로 보아서는 아모리 보아도 運動服으로나 輕便할가맛게 보이지 안습니다 접시 날느러 다니는 西洋 「국」의 衣服 갖고 東京 淺草 活動寫眞館 入口에 粉케케로 발느고 「이랏사이」하는 女네들 衣服 잣사외다 우리들의 口은 옷을 엇지하면 그에다 比하리가 雲泥의 差異지요 實로 아름답고 輕便한 衣服은 우리 只今 口은 衣服이외다 무슨 까닭으로 일부러 朝鮮의 特色 잇는 貌樣을 모다 뜨더곳 치여 西洋옷 비슷하게 할 必要가 잇슬가요!9)

兄이여 衣服에 質朴하라 하시니 이러케까지 絶對 制限을 하여야만 할 것입닛가 올습니다 近來 朝鮮社會에서 人를 批評하는 더구나 女子 即 女學生을 批評하는 標準이 極히 單純하고 極히 曖昧하고 極히 幼稚합니다 그의 學識이 如何하며 그의 性品이 如何하며 그의 人格이 如何하며 그의 事業이 如何한 것을 不問하고 衣服으로 그의 人格 全部를 定해 버립니다 內不 足故로 外飾이란 聖人의 敎訓도 잇지마는 甚한 것은 粉 말는 者는 淫亂으로 指目하고 고흔 衣服 口은 者는 浮浪者로 指目해 버립니다20)

그리고 여성들이 어떤 의복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학식과 성품과 인격을 비평하고 평가하는 조선 사회의 구태의연한 사고도 개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정개량에 관련된 담론은 단지 의복문화에 머무르지 않고 음식문화나 주거문화에도 개량과 개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개량은 여성 교육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신문과 잡지의 담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朝鮮家庭의 改良할 點은 果然 何인가

가정개량에 대하여는 갑작히 조흔 의견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몇마디 말하겠습니다 물론 인습과 습관 타파가 쪼차감니다 그 까닭에 가정개량에도 인습과 습관을 힘있게 타파하여야 할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업습니다 첫째 가정개량에 잇서서 나는 조선사람의 의복을 개량하랴고 합니다 <중략> 우리 가정의 음식개량이외다 <중략> 그리하고 침실에서 밥을 먹지 말고 부엌과 잣가운 곳에 식당을 만들고 밥을 먹도록 개량하면 조켓습니다 가정개량에 잇서서는 무엇보다도 여자교육(女子教育)이 필요합니다

나의 의견으로는 가장 먼저 개량하여야 할 문제가 가정개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량의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는 모다 일일이 손꼽아 말할 수가 업스리만치 만홀 것이외다 그러나 대테로 보아

19) 羅蕙錫(1921)「婦人衣服改良問題—金元周兄의 意見에 對하야(1)」『東亞日報』9월 28일자 3면

20) 羅蕙錫(1921)「婦人衣服改良問題—金元周兄의 意見에 對하야(4)」『東亞日報』10월 1일자 3면

실질개량과 형식개량의 두 가지가 있을 것외다 먼저 실질에 잇서서는 가정을 조직하는 남녀 두 사람의 머리를 개량하여야 하겠습니다 <중략> 그 다음의 형식에 잇서서는 의식주(衣食住) 세 가지를 개량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복은 할 수 잇는대로 심색을 쓰는 것이 조켓스며 괴어히 양복을 입어야 할 것은 아니외다 그리하고 음식은 위생에 덕당하도록 만드려 먹어야 하겠스며 서양요리나 일본요리를 먹어야 할 것은 아니겟시오 나중으로 주택에 잇서서도 역시 서양식이나 일본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 아니오 조선의 고유한 건축을 그대로 가지고라도 다소간 개량을 더하여 햇빛과 바람이 잘 드러오고 또는 정결하도록 하면 그만일 것이외다²¹⁾

이러한 가정개량론의 근거에는 전통적인 풍습이나 구태의연한 인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의 의복문화, 음식문화, 주거문화 등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을 구성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사고방식이 개량되어야만 실질적인 개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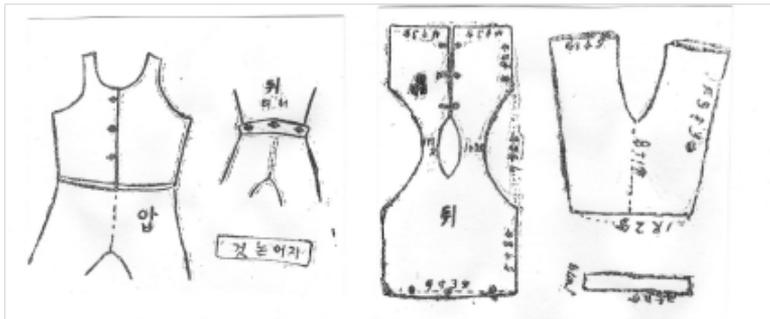
當初에 우리가 몸에 衣服을 걸칠 必要를 깨닫기는 무엇으로 困함인가를 먼저 생각해볼진대 두 가지의 원인이 잇스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한가지는 붓그러움다는 마음 다시 말하자면 男女를 물론하고 자기의 局部 卽 生殖器를 남에게 洩이지 안으려는 마음이요 또 한가지는 치위를 막고자 하는 本能으로부터 衣服의 必要를 깨달은 것이 安인가 하는 것이올시다 衣服의 必要를 깨닫고 衣服을 몸에 걸치고 나서는 또 다시 衣服을 아모조록 몸에 잘 맞게하고 쉽고 벌거버슨 몸과 가티 거추장스럽지 안케도 하고 심헛슬 것이며 衣服의 맵시도 내고 심헛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몸에 잘 맞지 안튼 衣服이 잘 맞게도 되고 거추장스럽든 것이 거추장스럽지도 안케 되었스며 보기에 곱지 못하든 옷이 차차로 아름답게 되어온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까닭에 그 衣服을 보고 그 民族의 歷史의 오래고 갖가운 것을 알며 文明 程度를 躡힐 수가 잇다는 말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²²⁾

快感 가운데 가장 사람의 審美眼을 끄는 것은 衣服이라 할 수 잇다 衣服이라 할 수 잇다 文化가 向上할수록 衣服에 대한 美的 欲求가 더해 간다 왜 그러나 하면 日常生活의 感美的 經驗은 衣服을 만히 對象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近代에 와서는 衣服의 美的 欲求만을 滿足식힐 뿐만 아니라 其 時代 精神까지 表現한다 하겠다. 그 나라의 衣服制度를 보아서 그 國民의 風紀라든지 習慣을 알 수 잇는 것도 그 까닭이다 이가티 人類生活의 唯一한 標的이요 象徵인 衣服制度를 閑却함은 우리의 큰붓그림이라 할 수 잇다 나는 衣服改良에 대해서 세 가지 管見을 가지었다 첫째는 線美를 가질 것과 둘째는 色彩美를 가질 것과 셋째는 衛生的이야만 되겟 따고 생각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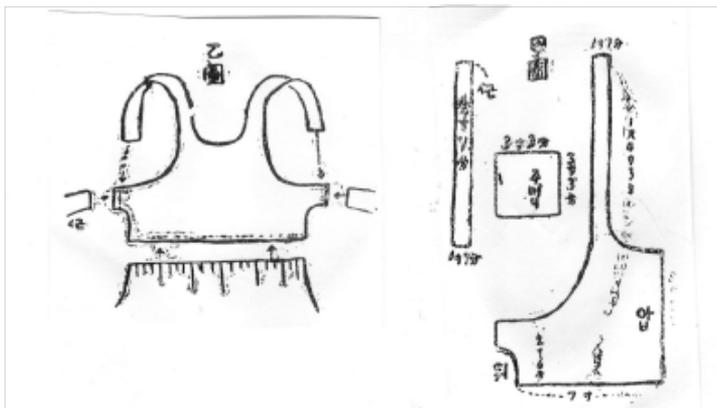
21) 「新入의 要求하는 新家庭」『東亞日報』1923년 1월 1일자 11면
 22) 柳八克(1924.11)「女子衣服 改良問題에 對하여 -반듯이 고칠 것 여러가지-」『新女性』통권 제10호, p.493
 23) 金一葉(1924.11)「衣服과 美感 -改良意見 몇 가지-」『新女性』통권 제10호, p.506

이러한 가정개량 담론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의복을 위생적이면서 편리한 의복으로 개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게 된다. 의복에 대한 미적 욕구를 통해서 심미적이고 위생적인 일상생활을 경험하면서 개량의복이 탄생하게 된다. 여성교육과 더불어 의복문화를 비롯한 음식문화, 주거문화 전반의 의식주 개선 운동은 당시의 지식인들과 신여성 사회에 있어서 가정개량 담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주 개선은 외래형식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재래형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개량해가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개량 내복이나 개량 앞치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래의 양식에서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것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것으로 개선해 나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림1> 신유행 개량 내복 만드는 법²⁴⁾



<그림2> 개량 앞치마 만드는 법²⁵⁾

24) 金英順(1924.11)「이러케 개량한 것 두 가지」『新女性』통권 제10호, p.513

25) 金英順(1924.11) 앞의 글, p.514

그리고 재래식 주택이 불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외래 양식을 도입하면서도 온돌과 장독대 등의 전통 양식을 절충하는 개선안을 찾으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생활 개선을 한다고 해서 외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개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천연적인 환경이나 일상생활 환경이 전혀 다른 외래 양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개량의 본래 취지와 모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의 양식을 과학적으로 고쳐가면서 외래 양식을 적절히 가미하여 우리의 생활양식으로 동화시켜 나간다는 주장이 당시의 개량 담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집제도를 처음 생각해낼 때에는 김혼 연구가 잇섯을 터이나 이리케 수백년 동안을 단순한 경험으로 만 가지고온 까닭으로 지금와서는 실로 결담이 만케 되었습시다 더구나 시대도 바긔고 살림살이도 다르게 됴에 곳쳐야 할 담이 점점 늘어갈 것이외다 대개 한 채의 집에 대하여 1) 전테의 마련(全體設計)과 2)꾸미는 본(構造)과 3)모양의 아름다움(內外觀의 美) 등 세 가지가 꼭 알맞도록 되면 시대에 맞고 살기에 덕당하게 되면 실로 리상덕(理想的) 주택이라 할 수 잇습시다 <중략> 그리고 우리의 습관은 데일 깨끗하게 하여야 할 변소(便所)를 너무 더럽고 좁게 하는 것은 빨리 곳쳐야 하겡습시다 변소란 것은 실로 우리가 늘 들어잇는 방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롭게 하며 심하면 목숨까지 빼아서기는 무서운 병균(病菌)이 만히 잇는 까닭이외다²⁶⁾

1920년 이후 주거공간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도 위생과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개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량 담론이 형성되어 갔다. 전통적인 조선의 주택구조에서 편리하고 합리적인 설계와 내외관의 미적 관점, 위생적인 관점, 실용적인 관점, 경제적인 측면을 가미한 개량주택이 등장하게 된다.

數年 以來로 「住宅改善」이라는 問題가 社會問題化 하여 왓기 大衆의으로 이 問題에 着眼한 것 잣다 그리고 이것의 影響으로 요사이 住宅建築은 前과 다른 所爲 「文化住宅」이라 하는 것이 한참 때 만난 「虎列刺」나 「腸室扶斯」 流行하듯 이곳저곳 생겨 퍼져간다 그 流行의 形勢를 分類하면 먼저 말한 네 가지다

(1) 西洋式에 盲從, (2) 日本式의 加味, (3) 西洋式과 朝鮮式의 混合, (4) 在來式의 固執 <중략> 要하 건대 우리의 長久한 生活이 나하노흔 在來形式을 土臺로 하고 우리 地方의 産物을 材料로 하여 科學的인 樣式이 構築法을 構成手段으로 하고 우리의 趣味를 裝飾하여 우리 生活의 容器가 될 家構 우리 生活의 表現일 것이다.²⁷⁾

26) 李醺雨(1923)「住宅은 如何히 改良할가」『東亞日報』1월 1일자 10면

27) 朴吉龍(1930)「流行性的의 所謂 文化住宅」『朝鮮日報』9월 22일자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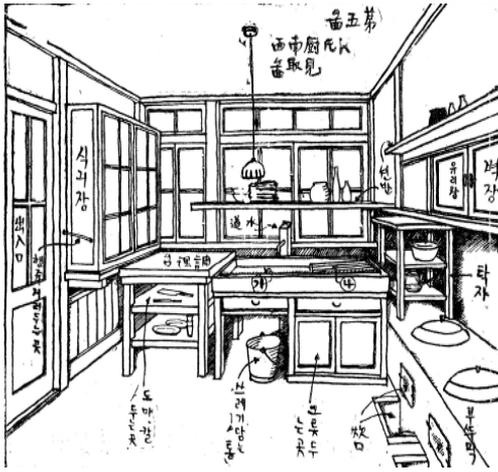
특히, 위생 담론은 관련 의학을 근거로 하여 생활 개선을 강조하면서 의식주 담론과 결합하게 된다.²⁸⁾ 개항 이후 전통주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당시의 지식인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면서 문명개화를 통해 부국강병을 달성하고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주거공간의 실천이 절대적이었다. 당시의 위생에 대한 관념은 ‘비위생=미개, 위생=문명’이라는 주거의식이 신여성을 비롯한 지식인들 사이에 상당히 공유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문화주택 유행을 일제강점기 당시 유행하던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 유행에 비유한 점으로 보아도 당시의 위생과 청결 담론은 주택문화 전반에 걸쳐 상당히 강조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 지어진 개량주택과 문화주택, 즉 주거공간의 개량은 전통적인 주거방식의 비기능성, 비경제성, 비위생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중심적인 요소였다고 생각된다. 재래식 부엌은 가족들의 보건을 보전하지 못하며 가정의 주인공인 여성들의 행복을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정생활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래식 부엌은 채광과 통풍이 불완전하여 병균이 번식하기 쉽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재래식 주거공간을 위생과 편리성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⁹⁾ 이러한 위생과 청결의 문제는 주거문화 개선 전반에 걸쳐 강조되었으며, 특히, 전통적인 부엌과 화장실 등에 대해서 기능적 측면과 위생적 측면을 고려한 주거공간으로의 개량은 당연히 신여성들의 생활 담론이기도 했을 것이다.³⁰⁾ 전통적 주거공간은 넓고 비위생적이며, 전근대적인 생활 환경으로 평가되면서 주거공간의 개량 담론은 전통주택의 취사공간이나 화장실 등의 비위생적인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되었다.³¹⁾ 여성들의 가사노동의 비효율성에 대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전통적인 대기족 제도에서 근대적 핵가족 제도로의 재편을 전제로 한 주거공간의 개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 申弼浩(1923)「의학상으로 본 조선인의 의식주(1)~(10)」『東亞日報』8월 26일~11월 25일자 각 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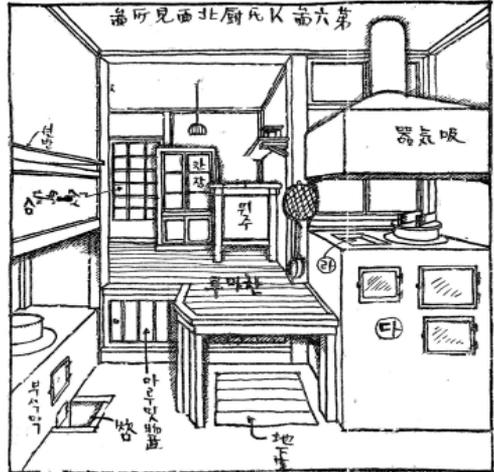
29) 박길룡(1932)「廚에 對하여(3)」『東亞日報』8월 11일자 5면

30) 박선영(2018)「1930년대 여성잡지의 가정 공간 표상과 근대적 여성」『인문사회』21, 9권 4호, p.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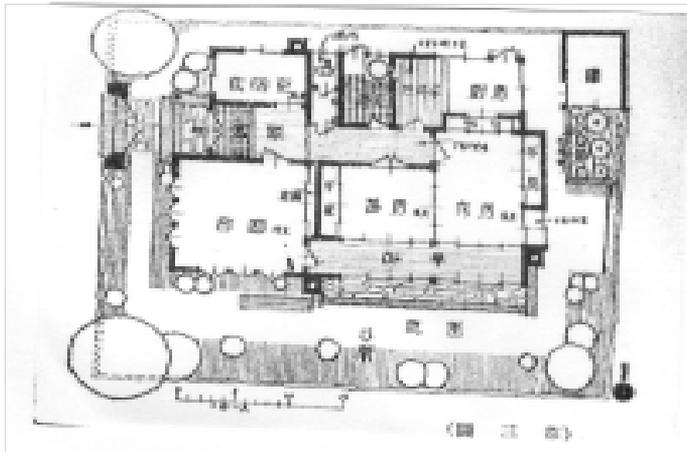
31) 전남일(2005)「여성의 지위와 주거공간 -전통 주거공간에서 현대 주거공간까지」『성평등연구』제9집,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pp.145-163



<그림3> 부엌개량안32)



<그림4> 부엌개량안33)



<그림5> 개량주택시안(단면도)34)

32) 박길룡(1932)「廚에 對하여(5)」『東亞日報』8월 13일자 5면
 33) 박길룡(1932)「廚에 對하여(6)」『東亞日報』8월 14일자 5면
 34) 朴吉龍(1934.3)「改善住宅試案」『新女性』통권 제15호, p.566

4. 나오며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잡지와 신문에 나타난 여성교육과 가정개량에 관한 담론을 정리하고 이러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3·1운동 이후 상황을 수습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여성교육을 표방하면서 근대교육을 받게 되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게 된다. 초기의 여성교육 운동은 민중의 호응을 그다지 얻지 못했지만, 점차 여성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널리 확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의 지식인층과 신여성들은 소위 가정개량론이라는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담론은 일제의 식민지 현실 속에서 전통과 인습을 타파하고 남녀평등과 여성해방, 여권신장 등의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주장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 시기에 여성해방을 다룬 신문과 잡지 기사들은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당함을 폭로하면서 이러한 불평등한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사회 구성원 주체로서의 참정권과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현모양처 교육보다는 남녀평등과 인격주의에 입각한 창조적인 여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현모양처 교육은 남성 우월 의식에서 기반한 남성 본위의 여성 교육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남녀평등과 여권신장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 본위의 교육으로 개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의 자각 있는 여성은 자유와 평등사상을 토대로 남녀평등과 여권신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성해방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시대의 인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성 본위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여성 교육을 통해서 여성 본위의 가정개량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형성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가정개량에 관련된 담론은 의복문화는 물론이고 음식문화, 주거문화 등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개량과 개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개량은 여성 교육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신문과 잡지의 담론은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개량론의 근저에는 전통적인 풍습이나 구태의연한 인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의 의복문화, 음식문화, 주거문화 등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을 구성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사고방식이 개량되어야만 실질적인 개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3·1운동 이후 기만적인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여성 교육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여성 교육과 더불어서 진행된 의식주 개선 운동은 당시의 지식인들과 신여성 그룹이 가정개량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복제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

강이수(2004)「근대여성의 일과 직업관 -일제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사회와 역사』제65집, 한국사회사학회
 起田(1925.9)「朝鮮女子로 또 한번 覺醒할 鮎」『新女性』통권 제19호
 김경일(2004)『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金基鎭(1925.6)「구식녀자와 달르담」『新女性』통권 제17호
 金麗生(1920)「女子解放의 意義(1)-(2)」『東亞日報』8월 16~17일자
 金元周(1921)「婦人衣服改良에 對하여 한가지 의견을 드리나이다(1)」『東亞日報』9월 10일자
 _____(1921)「朝鮮風을 忘却함은 不可 부인의복개량에 대한 의견(4)」『東亞日報』9월 14일자
 김윤선(2009)「근대 여성매체 『신여성』에 나타난 여성의 소비문화」『동양학』제45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김응화(2012)「근대 상품광고로 본 신소비문화와 신여성」『동국사학』제52집,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金一葉(1924.11)「衣服과 美感 -改良意見 몇 가지-」『新女性』통권 제10호
 羅蕙錫(1921)「婦人衣服改良問題 -金元周兄의 意見에 對하여(1)-(4)」『東亞日報』9월 28일~10월 1일자
 柳八克(1924.11)「女子衣服 改良問題에 對하여 -반듯이 고칠 것 여러가지-」『新女性』통권 제10호
 鳳栖山人(1920)「人權과 男女平等(2)」『東亞日報』7월 10일자
 梁柱東(1922)「女子教育을 改良하라(1)-(6)」『東亞日報』11월 13일~19일자
 이경규·이행화(2017)「일제강점기 조선의 신여성에 관한 담론 형성」『외국학연구』제39집, 중앙대학교 외국학
 연구소
 이소연(2004)「일제강점기 여성잡지 연구 -1920~30년대를 중심으로-」『이화사학연구』제29집, 이화여자대학
 교 이화사학연구소
 이행화·이경규(2016)「일제강점기의 조선 신여성 인식에 관한 일고찰 -여성잡지 『新女性』을 중심으로-」『일본
 근대학연구』제51집, 한국일본근대학회
 _____(2017)「일제강점기의 직업여성에 관한 담론」『일본근대학연구』제57집, 한국일본근대학회
 전남일(2005)「여성의 지위와 주거공간 -전통 주거공간에서 현대 주거공간까지-」『성평등연구』제9집, 가톨릭
 대학교 성평등연구소
 朱基璠(1921)「女子解放의 根本方針(2)」『東亞日報』7월 21일자
 주창운(2008)「1920-1930년대 ‘모던 세대’의 형성과정」『韓國言論學報』52권 5호
 李鰻雨(1923)「住宅은 如何히 改良할가」『東亞日報』1월 1일자
 金英順(1924.11)「이러케 개량한 것 두 가지」『新女性』통권 제10호
 박선영(2018)「1930년대 여성잡지의 가정 공간 표상과 근대적 여성」『인문사회』21, 9권 4호
 朴吉龍(1930)「流行性的의 所謂 文化住宅」『朝鮮日報』9월 22일자
 박길룡(1932)「廚에 對하여(1)-(6)」『東亞日報』8월 8일~14일자
 朴吉龍(1934.3)「改善住宅試案」『新女性』통권 제15호
 申弼浩(1923)「의학상으로 본 조선인의 의식주(1)-(10)」『東亞日報』8월 26일~11월 25일자
 与謝野晶子(1920)「自己로 사는 婦人(1)-(4)」『東亞日報』6월 21~24일자
 Ellen Key(1916)「War, peace and the future」G.P.Putnam

논문투고일 : 2020년 01월 05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1월 17일
 1차 수정일 : 2021년 02월 08일
 2차 수정일 : 2021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2월 17일

 <要旨>

일제강점기 여성교육과 가정개량 담론에 관한 일고찰

이경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잡지와 신문에 나타난 여성교육과 가정개량에 관한 담론을 정리하고 이러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해방을 다룬 신문과 잡지 기사들은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당함을 폭로하면서 이러한 불평등한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사회 구성원 주체로서의 참정권과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현모양처 교육보다는 남녀평등과 인격주의에 입각한 창조적인 여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현모양처 교육은 남성 우월 의식에서 기반한 남성 본위의 여성 교육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남녀평등과 여권신장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 본위의 교육으로 개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시대의 인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성 본위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여성 교육을 통해서 여성 본위의 가정개량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형성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개량론의 근저에는 전통적인 풍습이나 구태의연한 인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의 의복문화, 음식문화, 주거문화 등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을 구성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사고방식이 개량되어야만 실질적인 개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성 교육과 더불어 의식주 개선 운동은 당시의 지식인들과 신여성 그룹이 가정개량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폭제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Regarding the Discourses on Women's Education and Household Reform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Lee, Gyeong-Gyu

This study reviewed the discourses on women's education and household reform handled in Japanese colonial era's magazines and newspapers and looked at how they were formed.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dealing with women's liberation reveal the injustice of women's situations, arguing that these unequal issues should be addressed. It is argued that women, like men, should equally be guaranteed the right to vote and live as democratic members of society, and that rather than traditional education capitalizing upon the ideal for traditional good-wife-and-wise-mother womanhood, creative and progressive education should be furthered for women based on gender equality and personalism. It points out that such a conservative education for women as the former tends to be grounded basically in male superiority, thus arguing that the education for women should be first and foremost female-oriented based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to improve women's status in societ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women in order to break down the old customs, it can confirm that there develops the discourse on a need for female-oriented household reform. The basis of the household-reform theory lies in that it is necessary to educate women, and only when the mindset of both men and women constituting a whole family can be improved, in order to make an overall makeover of Joseon's clothing, culinary and residential cultures which still stay unchanged in its old-fashioned mores and conventions. In addition to women's education, the life-improvement movement played a role as a catalyst for promoting household-reform discourse among then intellectuals and new women.